

## 포장과 세계화

**최** 근 김영삼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국정지표로 천명한 세계화 구상은 우리 주변 모두의 관심이자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해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무역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에 산업경제는 물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세계화는 필지의 사정으로 치부된다.

동남아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우리의 무역 경쟁국으로서 세계화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 한다.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언어의 세계화, 제도나 법규의 민주화 등 여러 부문에서 세계화를 구현하고 있는 모델이다. 우리도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종래에 추진해 오던 국제화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화를 지향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외형상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으로서 많은 상품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이들 상품의 수출에는 필수적으로 포장이 동반되고 있으며, 포장의 발전 없이는 상품의 수출도 이룩될 수 없다. 여기서 포장의 세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포장의 기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 기회에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포장은 '말 없는 세일즈맨'이라는 언표가 포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외국 바이어들은 '제품은 어느 정도 사 줄 수 있는데 포장이 못미친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포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물류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절감 기능과 둘째, 마케팅 분야의 상품화 기획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포장디자인, 즉 상품의 판매촉진 기능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현대 물류의 첫 단계인 포장이 잘못되면 물류 전반에 걸쳐 원가부담의 요인이 된다. 이는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의 균형이 일그러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상품을 운반하는 수송수단(트럭, 선박, 컨테이너 등)에 포장치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부문에 원가절감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수송비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것처럼 잘못된 말로 들릴 지 모르나 상품에 있어서는 수송수단에 포장의 치수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물류문제가 포장산업의 세계화를 지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다.



## 이 대 성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상근부회장

또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처음 대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포장이다. 과연 이때 포장디자이너가 잘못 되었다면 상품 구매자가 그 상품을 선택할 것 같은가?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포장의 두 가지 기능을 무시하고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포장에는 상품을 팔리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보다 많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포장디자인에 대한 세계화 수준이 아울러 요청되는 물론이다.

오늘날 플라스틱 총생산량의 40퍼센트가 포장에 사용될 정도로 포장제조업은 거대한 산업이다. 그리고 소재 및 원자재 제조업은 하드웨어 산업이라 한다면 포장은 가공, 인쇄 등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산업으로써 대부분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소액의 투자와 인력양성, 중소기업 제도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의 포장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아태지역의 발전 경향으로 보아 시장 개척

또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그만큼 국내 포장산업은 세계화 산업으로 발돋움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전세계적으로 21세기의 최대 이슈는 환경문제임은 주지하는 바다. 특히 각종 폐기물 처리문제가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 고품폐기물의 50퍼센트가 포장 폐기물일 정도로 포장과 환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포장의 연구 없이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근래의 대체적인 연구 결과는 포장감량화가 포장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새로이 전개될 그린 라운드 시대를 맞아 우리가 계속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환경대응 노력도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미래사회의 특징은 정보화 사회로 사람의 이동은 감소하고 물자의 움직임은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선진국일수록 통신판매의 범위가 넓어짐), 물자의 이동단위는 포장이다. 때문에 우리 포장업계는 제품의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포장기술 및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계화를 겨냥한 계속적인 연구로 포장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